

## 도전과 실수를 통해 배우다

양원석\*

지금도 불현듯 8개월 전의 그 어느 날을 생각하면 참으로 여러 기억들이 한데 뒤얽힌 미소가 나도 모르게 입가에 맴돈다. 작년 8월, 여름방학의 끄트머리쯤의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뒤적이다가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이라는 문구에 잠시 눈길을 빼앗긴 뒤 평소의 나답지 않게 한번 지원해보리란 아무진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어떻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결국, 고민 끝에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을 찾아뵙게 되었고 그중 우리 학과에서 가장 젊은 교수님이신 이기훈 교수님께서 흥미 있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생체모방 올리고펩티드의 화학적 합성 및 구조 분석’ 내가 읽어봐도 신기한 그런 주제였다. 난생 처음 연구 계획서라는 걸 써보는지라 미흡한 점도 많았는데, 운 좋게도 연구 계획서가 심사에서 채택되어 정말이지 연구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한 달간은 연구 주제에 관한 이론적인 학습을 하기로 마음먹고 각종 논문과 실험 방법서들, 참고 서적들을 골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던 이론과 실험 방법들이 조금씩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중간고사가 끝나갈 때쯤, 마음으로는 아직 두려움이 앞섰지만 실제 실험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학교 측에서 지원해준 100만 원의 지원금으로 실험에 필요한 시약들을 구입한 날, 줄줄

### 교육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바이오소재공학전공 2000학번, ‘제3회 학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제 1유형 Independent Study 참여자(연구 과제: 생체모방 올리고펩티드의 화학적 합성 및 구조 분석).

이 늘어선 시약병들을 보며 혼자 들떠서 사진까지 찍어대며 뿌듯해했던 것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실험 초기에는 나의 무지와 담뱃거리의 성격 탓에 정말 황당한 실수도 꽤 많았다. 가끔씩은 ‘내가 과연 연구자의 자질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기도 했다. 그래도 교수님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셨고 ‘합성의 달인’이라는 농담으로 지친 나를 응원해주셨다. 그러던 중 실험에 가장 필수적인 반응 용기를 실수로 깨뜨려 한순간에 실험 계획이 열흘가량 미뤄지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결국, 마지막에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마감일까지 부족하지만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방학 말마에 맞았던 발표회 날은 정말 뿌듯함과 감사함에 가슴이 벅찼다. 10분간의 발표 시간은 6개월간의 노력과 그로부터 느꼈던 고마움과 감동까지 전하기는 너무 짧은 순간이었다. 다행히 이렇게 그간의 일들을 미소 지으며 회상할 수 있는 행복한 선물까지 허락해주신 덕에 그동안의 소감을 다소나마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쁘다. 부족한 능력을 격려와 애정 어린 지도로 감싸주신 이기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리며,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교수학습개발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